

우한 폐렴

며칠 전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께서 집 앞으로 지나가시며 나에게 인사를 하신다.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 어디 갔다 왔지?”라고 하신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난 두 주간 내가 어디를 갔다가 왔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나는 집에 그냥 있었다. 볼 일이 있어서 여기저기를 다녔지만 멀리 여행은 하지 않았다. 그래도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여서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였다.

고마웠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우리 집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만큼 주위 이웃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나는 내가 사는 집 문을 꼭 닫고 다는 일에는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옆집에 문이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내게 손해가 되는 일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에는 너무 관대한 마음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많은 뉴스를 접한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100%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다. 그런데 천 만 명이 넘는 그 도시가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고 내 마스크를 찾기에 마음이 더 쓰인다. 이제는 이웃과도 함부로 손을 잡고 껴안고 반가워할 수 없는 때가 왔는가? 걱정도 된다. 세계 선교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세계 선교에 우선자라는 생각까지 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옆집과 나 사이에 세운 벽을 낮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좋아하는 나라 말고 내가 사랑해야 할 나라에 대한 담을 허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해야 우한 폐렴의 시작인 중국의 우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까?

우한에서 전세계 편으로 돌아온 한국인들이 14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지나고 있을까? 생각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보낼 수 있는 사랑의 위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물론 미국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나의 선교관 또한 이웃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14장 21절)라고 하신다.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당연한 마음이다.

할 수 있는 대로 만나고, 돕고, 섬기고, 열싸안으며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면에서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서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며 자주 악수하고 항상 열싸안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오레곤 새로운교회가 그런 교회여서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마음을 열고 세계를 품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한다.